



정답 및 해설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국어

C

6

한국 문학의 흐름

(1) 옛 노래 세 편 감상하기

제망매가_월명사 / 이 몸이 죽어 가서_성삼문 /
동짓달 기나긴 밤을_황진이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1~013쪽

- 01 (1) ○ (2) ○ (3) ○ (4) ○ (5) × (6) ○ (7) ○ 02 ④
 03 ① 04 ㉠-㉡, ㉢-㉣, ㉤-㉥, ㉦-㉧, ㉨-㉩, ㉪-㉫, ㉬-㉭
 05 (1) ○ (2) ○ (3) ○ (4) ○ (5) ○ (6) × (7) ○ 06 ④
 07 ⑤ 08 (1) 백설 (2) 낙락장송(落落長松)
 09 서리서리, 굽이굽이

01 (5) 화자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지만, 혈육을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며 극복하고 있다.

02 이 글은 ‘누이의 죽음을 슬퍼함.(1~4행) → 혈육의 죽음을 통해 인생의 무상감을 느낌.(5~8행) →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극복함.(9~10행)’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작품이다. ② 불교의 윤회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다. ③ ‘기(1~4행) - 서(5~8행) - 결(9~10행)’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향가 중 가장 정제된 형태의 10구체 향가이다.

03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지만 이를 종교적으로 승화하며 극복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를 통해 화자가 누이의 죽음을 절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05 (6) 2는 입을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을 비유와 음성 상징어 등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으며, 입에 대한 원망은 찾아볼 수 없다.

06 ‘백설’은 왕위를 찬탈한 부정한 세력으로 수양 대군 일파를 가리키며, 소나무와 대조적인 성격을 띤다.

오답 해설 ① ‘백설(흰색)’과 ‘독야청청(獨也靑靑 - 푸른색)’이 색채 대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② 초장에서 자신이 죽은 후의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 있으며, 중장과 종장에서 자신이 죽은 후의 모습에 대해 자답하고 있다. ③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자연물인 소나무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⑤ ‘낙락장송(落落長松)’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이고, ‘독야청청(獨也靑靑)’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말이다. 그러므로 이 둘을 통해 충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07 입의 부재라는 부정적 시간을 ‘동짓달 기나긴 밤’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계절의 변화를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9 ‘서리서리’는 국수, 새끼, 실 따위를 형클어지지 않도록 둥그렇게 포개어 감아 놓은 모양을, ‘굽이굽이’는 여러 굽이로 구부러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둘 다 음성 상징어에 해당한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14쪽

- 02 누이의 죽음이 병환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05 시조는 고려 시대 말기부터 발달해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이다.
 07 초장에서 자문(自問)하고 중장과 종장에서 자답(自答)하는 자문자답(自問自答)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09 ‘낙락장송(落落長松)’은 굳은 절개를, ‘백설이 만건곤(滿乾坤)할제’는 수양 대군의 득세를 상징하므로 의미상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10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절개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가 드러난다.
 13 ‘동짓달 기나긴 밤’은 부정적 시간이고 ‘어론 남 오신 날 밤’은 긍정적 시간으로, 서로 대조적인 상황이다.
 15 10구체 향가는 ‘기 - 서 - 결’의 3단 구성을 취하며, 시조는 ‘초장 - 중장 - 종장’의 3단 구성을 취한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16~021쪽

1 ①	2 ③	3 ③	4 ④	5 ④
6 ③	7 ③	8 ⑤	9 ㉠: 예, ㉡: 미타찰(彌陀刹)	
10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종교적인 의식	11 ④	12 ⑤		
13 ⑤	14 개			

1 (가)는 ‘1~4행(기) - 5~8행(서) - 9~10행(결)’의 3단 구성이고, (나)와 (다)는 ‘초장 - 중장 - 종장’의 3단 구성이다.

오답 해설 ② (가)에만 시상을 전환하는 김탄사(아아)가 쓰였다. ③ (가)에만 혈육에 대한 추모의 정이 드러나 있다. ④ 마지막 부분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시조의 특징으로, (나)와 (다)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에서 화자가 입이 없는 상황에서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입이 부재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가)는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절의를 표현하고 있다.

2 (나)의 ‘낙락장송(落落長松)’과 ‘백설’은 대조적 의미를 지닌 자연물로 제시되었으나, (다)에는 객관적 상관물에 감정이 이입된 부분이 없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죽은 누이를 추모하며 창작한 작품이고, (나)는 수양 대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고 단종의 복위를 꾀하며 창작한 작품이다. ② (가)의 화자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사랑하는 입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다. ④ (가)와 같은 10구체 향가는 9행의 첫 구에 ‘아아’, ‘아’ 같은 김탄사가 나타나며, (나)·(다)와 같은 시조는 중장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된다. ⑤ (가)의 화자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면서 극복하려 하고 있으며, (다)의 화자는 입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과 입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3 (나)의 ‘낙락장송(落落長松)’은 굳은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자연물로, 화자는 이를 통해 끝까지 굳은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지 않다. ② 자연물(바람, 잎, 가지)을 통한 상정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의인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기나긴 겨울밤을 잘라 내겠다는 참신한 발상은 나타나 있으나, 관조적 자세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4 (다)는 이별한 입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런데 ④는 자연 귀의와 안빈낙도를 노래한 작품으로, (다)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임에 대한 기다림, 그리움)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입에게 보내는 사랑 / 이별의 정한 ②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 / 이별의 정한 ③ 입을 그리는 마음 ⑤ 입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

5 (가)와 <보기>의 화자는 이별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이별의 아픔을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극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만남과 이별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불교의 내세 사상,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기>는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 즉 만나면 반드시 이별하고 이별한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다는 불교의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②, ③, ⑤ (가)는 죽음으로 이별한 누이와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믿음을, <보기>는 이별한 입과 다시 만날 것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6 <보기>에서 성삼문은 단종의 복위를 피하다가 처형당했다고 했으며, (나)에서는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절의를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가 세조 옆에서 신하의 도리를 다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⑤ (나)의 작가인 성삼문은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절의를 지키며 단종의 복위를 피하다가 처형당한 인물이다. ②, ④ (다)의 작가인 황진이(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바탕으로, 입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 입을 기다리는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7 ㉠은 누이의 요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공감각적 심상은 사용되지 않았다.

8 ㉠에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절개를 지키겠다는 화자의 다짐과 의지가 드러나 있다. <보기>의 '일편단심(一片丹心)'은 임을 향한 화자의 한결같은 절개와 충성심을 나타내는 말로, ㉠과 대응한다.

오답 해설 ① '가미귀'는 부정적 대상으로, 수양 대군과 간신배를 의미한다. ② '야광명월(夜光明月)'은 긍정적 대상으로, 단종과 그를 따르는 충신을 의미한다. ③ '밤'은 시련과 고난, 즉 수양 대군의 특세를 의미한다. ④ '남'은 단종을 의미한다.

9 2행의 '예'는 이승(이 세상)을 의미하며, 9행의 '미타찰(彌陀刹)'은 저승(극락세계)을 의미한다.

11 (가)는 조선 전기에 창작된 평시조, (나)는 조선 후기에 창작된 사설시조로, (가)와 (나) 모두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시조로, '초장-중장-종장'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②, ③ (가)와 같은 평시조는 주로 사대부 계층이 창작했으며, 유교적 충의 사상이나 우국충정, 자연에서 즐기는 흥과 여유 등을 표현하였다. 반면 (나)와 같은 사설시조는 주로 평민들이 창작했으며, 실생활이나 현실에 대한 풍자, 남녀 간의 애정 등을 노래하였다. ⑤ (가)의 작자층은 주로 양반 계층이었으므로 한자어를 많이 사용했으며, (나)의 작자층은 주로 평민이었으므로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12 (가)의 화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절개를 보이고 있다. ⑤에서는 국화(선비)의 높은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으므로, (가)의 화자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 ② 근면한 농경 생활 ③ 농촌 생활의 풍요로움과 흥겨움 ④ 자연에 묻혀 풍류를 즐기는 그윽한 경지

13 '독야청청(獨也靑靑)하리라'에는 세조와의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고 절개를 지키겠다는 화자의 다짐과 의지가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이 몸이 죽어 가시'는 극한적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② '무엇이 될꼬 하니'는 죽은 다음 자신이 되려는 것에 대한 자문(自問)에 해당한다. ③ '봉래산(蓬萊山) 제일봉'은 신령한 산의 제일 윗부분으로, 화자가 되고자 하는 '낙락장송(落落長松)이 있기에 적합한 곳이다. ④ '백설이 만건곤(滿乾坤)하다는 것은 수양 대군의 특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화자는 수양 대군에 대한 저항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본문 022~027쪽

소단원 심화 평가

1 ㉠	2 ㉡	3 ㉢	4 ㉣	5 ㉤
6 ㉥	7 ㉦	8 ㉧		
9 • 3행의 '나': 누이 • 9행의 '나': 화자(월명사)				10 해설 참고
11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절개		12 동짓달 기나긴 밤		
13 ㉠: 화자, ㉡: 부정한 세력(수양 대군 일파)				
14 우리말의 모미가 드러나는, '서리서리'와 '굽이굽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15 해설 참고

1 (가)의 화자는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입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과 입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가), (나) 모두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⑤ (가)는 '예(이승)와 미타찰(극락세계)이 대비되고 있으나, 화자는 운명이 아닌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며 극복하고 있다. (나)는 '동짓달 기나긴 밤'과 '어른 남 오신 날 밤'이 대비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운명에 대한 극복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2 • 기(1~4행): 누이의 죽음을 슬퍼함. • 서(5~8행): 혈육의 죽음을 통해 인생의 무상감을 느낌. • 결(9~10행):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극복함.

3 (가)는 10구체 향가로, 향가의 3단 구성 및 낙구의 감탄사가 시조로 계승되어 <보기>의 초·중·종장의 3단 구성과 종장의 첫 음보 3음절인 '어즈버'로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죽음으로 인한 누이와의 이별로 슬픔을 느끼고 있으나, <보기>의 화자는 나라가 망한 것으로 인해 슬픔을 느끼고 있다. ② (가)는 9행에서 '나'라는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만, <보기>에는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서, <보기>의 화자는 나라의 멸망에서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다. ⑤ <보기>의 종장에서 자연과 인간의 특성을 대조하여 표현하였지만, (가)에는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4 (나)와 <보기>는 부재하는 입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을 드러낸 시조이다. (나)와 <보기>의 작가인 황진이(가) 살던 조선 시대에 가부장제의 모순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두 작품 모두 그러한 모순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존재감을 찾으려는 여인의 면모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나)와 <보기> 모두 시조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② (나)는 임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을, <보기>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③ (나)와 <보기>의 작가인 황진이는 조선 시대의 기녀였으며, 진솔하게 애정 문제를 표현하고 있다. ④ (나)와 <보기> 모두 주로 순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다.

5 ‘어른 남’이 돌아올 수 없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의 ‘밤’은 화자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부정적 시간이고, ㉡의 ‘밤’은 화자가 임과 함께하는 긍정적 시간이다. ③ ㉢에는 ㉡에 대응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굽이굽이 떠나랴’가 적절하다. ④ ㉣와 ㉤에서는 ‘밤’을 아불 아래 넣었다가 편다고 했으므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사용되었다. ⑤ 화자는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지속하고 싶어서 동짓달의 밤을 잘라 ‘어른 남’이 오는 밤에 불인다고 표현한 것이다.

6 (나)에는 ‘서리서리’, ‘굽이굽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고, <보기>에는 ‘뚝뚝’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나)와 <보기> 모두 시선의 이동에 의한 시상 전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처음과 끝에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는 수미상관은 <보기>에만 사용되었다. ④ (나)와 <보기> 모두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보기>에만 경어체가 사용되었다.

7 ㉠은 이승(이 세상)으로, 누이가 아닌 화자가 있는 곳이다.

오답 해설 ㉠: 간다는 말도 못다 일렀다는 것은 누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음을 뜻하는 것이다. ㉡: 젊은 나이에 누이가 죽었음을 암시한다. ㉢: 임이 떨어졌다는 것은 누이가 죽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화자와 누이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을 나타낸다.

8 (나)의 주제는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이고 <보기>의 주제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다. 즉, (나)의 화자가 시간이 흐른 후에 <보기>를 썼다고 가정하면, 임에 대한 감정이 그리움에서 원망으로 변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화자가 임을 기다리는 일을 체념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③ <보기>에서 화자는 임에 대해 원망하고 있으므로, 임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아 슬프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에서 화자는 임이 오지 않는 이유를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 ⑤ <보기>에서 화자가 적극적으로 임에게 다가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10 **모범 답안**

㉠	를	통	해	10	구	체	항	가	의	9	행	의	첫
머	리	는	감	탄	사	로	시	작	함	을	알	수	있
이	렇	게	10	구	체	항	가	의	9	행	에	사	용
㉡	와	같	은	감	탄	사	는	시	상	을	집	약	하
진	환	하	는	역	할	을	한	다	.				

15 **모범 답안**

(나)	의	화	자	는	임	을	그	리	워	하	며	임
이	돌	아	와	함	계	할	시	간	을	간	절	히	기	다
리	고	있	는	데	반	해	,		<	보	기	>	의	화
는	오	지	않	는	임	에	대	한	원	망	을	드	려	
내	며	임	을	야	속	하	게	여	기	고	있	다	.	

(2) 고전 소설 감상하기

심청전_작자 미상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31~037쪽

- 01 (1) ○ (2) ○ (3) ○ (4) ○ (5) × 02 ㉢
 03 ① 04 심 봉사의 꿈
 05 (1) ○ (2) ○ (3) ○ (4) ○ (5) × (6) ○ 06 ㉣
 07 ① 08 ㉠: 인당수, ㉡: 효심(효성)
 09 (1) × (2) ○ (3) ○ (4) ○ (5) ○ 10 ㉤
 11 ㉣ 12 (1) ㉠ (2) ㉡ (3) ㉢ (4) ㉣
 13 (1) × (2) ○ (3) ○ (4) ○ (5) ○ 14 ㉤
 15 ① 16 ㉢: 심 봉사(아버지), ㉣: 순응

01 (5) 심청은 심 봉사에게, 자신이 남경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이 떠나는 날이라며 그간의 사정을 고백한다.

02 이 글에는 유교의 효 사상, 부처의 신통력을 내세우는 불교 사상, 뱃길의 안전을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민간 신앙, 옥황상제, 용왕, 선녀가 등장하는 도교 사상 등 여러 사상이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오답 해설 ① 뱃사람들이 인간을 제물로 바쳐 뱃길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은 당대의 민간 신앙에 해당한다. ② 전반부는 현실적인 공간(도화동)에서, 후반부는 환상적인 공간(용궁)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효녀 지은 설화>, <인신 공희 설화> 등의 배경 설화를 지닌다. 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파악하여 전한다.

03 뱃사람들은 심청의 처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주어 심청이 심 봉사에게 마지막 진지를 올리도록 배려하고 있다.

04 심 봉사가 꿈에 심청이 큰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본 것은, 심청이 인당수 제물로 가는 상황을 예고하는 동시에 훗날 심청이 황후가 될 것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하기도 한다.

05 (5) 동네 사람들이 아닌 뱃사람들이 심청 부녀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심 봉사의 생계 대책을 세워 주고 있다.

06 심청은 심 봉사의 생계 문제와 관련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았으며, 심청 부녀를 딱하게 여긴 뱃사람들이 심 봉사의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다.

07 심 봉사는 느닷없이 심청이 인당수 제물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은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뜻밖에도 임은 재난을 이르는 말이므로, 심 봉사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어려운 일이나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 ③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④ 어린 자녀를 애지중지하여 기르는 부모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 나갈 방도가 생긴다는 말

09 (1) 쌀을 내어 주겠다는 장 승상 맥 부인의 제안에 대해, 심청은 부모를 위해 공을 드리려고 한 것이니 남의 명분 없는 제물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한다.

10 심청은 쌀을 내어 주겠다는 장 승상 맥 부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저승에 가서라도 그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한시를 통해 인생의 무상함과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심청이 장 승상 맥 부인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다.

11 장 승상 맥 부인은 심청을 도와주려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심청은 감사하고 있으므로, 한시는 인물 간의 갈등 해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2 ㉠: 사람의 죽고 사는 게 한 꺾속임. ㉡: 풀 돋는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 ㉢: 난데없는 비바람이 어두운 밤에 불어옴. ㉣: 인간의 귀양살이를 하늘이 정함.

13 ① 심 봉사는 심청이 아직 인사를 하자 이별을 강하게 거부하며 몸부림치지만, 심청은 동네 사람에게 심 봉사를 붙들게 하고는 떠나고 있다.

14 한 걸음에 뒤돌아보고 두 걸음에 눈물 흘리는 모습에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심청의 슬픈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떠나면서 심 봉사를 위로하는 말이다. ② 슬퍼하는 심 봉사를 동네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는 모습이다. ③ 자신과 대비되는 처지의 동무들을 보며 탄탄하는 말이다. ④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말이다.

15 ‘밝은 해는 어디 가고 어두침침한 구름이 자욱하며’는 배경을 묘사한 것으로, ㉠에는 심청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청산(靑 그림), 강물(흐느낌), 꽃(사들어 제빛을 잃음), 버들가지(줄 듯이 휘늘어짐), 복사꽃(술픈 듯 피어 있음), 피꼬리(빗을 불러 울어 댐), 두견이(술픈 소리로 울.)와 같은 자연물에 떠나는 심청의 슬픈 마음을 이입하여 표현되고 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38쪽

04 후반부에 용궁이라는 비현실적인 공간이 등장하며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이 전개되기도 한다.

06 뱃사람들은 마지막에 아버지께 진지를 지어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심청의 부탁을 들어주는, 인정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07 심 봉사는 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슬퍼한다고 볼 수 없다.

08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간은 천륜기간(天倫之間)이라 꿈에 미리 보여 주는 바가 있었다.’,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등에 편집자적 논평이 사용되었다.

09 “액운이 막혀 있고 생사가 때가 있어 하느님이 하신 일이니 한탄한들 어찌하겠어요?”,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라마는 마지못한 일이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오.”로 볼 때 심청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 장 승상 맥 부인은 심청을 아끼는 마음에 대가 없이 쌀 삼백 석을 주고자 하였다.

14 심청은 심 봉사, 동네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슬퍼하고 있으며,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40~045쪽

1 ㉠	2 ㉢	3 ㉢	4 ㉢	5 진지
6 ㉢	7 ④	8 ④		

9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자식 죽어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나? 10 ㉡ 11 ㉡ 12 ㉢

1 이 글은 고전 소설로,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에 대한 설명이다. ②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④ 극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은 작품 밖의 전지적인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서술하고 있다. ⑤ ‘하였다’, ‘물렸다’ 등에서 보듯이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2 심 봉사는 심청이 떠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진짓상을 물려 내고 담배 태워 드린 뒤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간이 썩는 눈물은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뱃사람들이, 심 봉사에 진지를 지어 드리겠다는 심청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 있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⑤ ‘심 봉사는 철도 모르고, / ‘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뉘 집 제사 지냈느냐?’를 통해 알 수 있다.

3 ㉢은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 심청이 훗날 황후가 될 것을 암시하지만, 여기서는 심청의 죽음을 암시한다.

오답 해설 ㉠: 뱃사람들이 심청을 데리러 온 것으로 보아 심청이 인당수의 제물이 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 심청이 좋은 반찬을 올리며 심 봉사를 봉양하는 것은 심청의 효심이 깊기 때문이다. ㉢: 심 봉사의 꿈 이야기에 심청은 자신이 죽을 꿈인 줄 짐작했지만, 심 봉사를 안심시키기 위해 좋은 꿈이라며 돌려대고 있다. ㉣: 심청은 떠나기 전 사당에 가서 하직 인사를 올리고 있다.

4 ㉢은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6 심 봉사는 심청을 잃고는 살 필요가 없다며 심청을 아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심청은 “이도 또한 천명이나 후회한들 어찌하겠어요?”라며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② 심 봉사는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궁지수(四窮之首) 된단 말이나?”라며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뱃사람들은 심 봉사에 구체적 물건을 지원하고 관청에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⑤ 뱃사람들은 심청 부녀를 딱하게 여겨 심 봉사에 한 살림을 꾸며 주려 하고 있다.

7 [A]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구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참말이나, 참말이나?’, ‘애고 애고,’ 등에서 반복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탕임금의 고사를 인용하여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이 중요하다는 심 봉사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③ ‘자식 죽어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나?’,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 살아서 무엇하리?’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⑤ 아내를 잃고 홀로 심청을 키운 일을 이야기하며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8 ㉔은 '여럿이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의 의미이다.

10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 봉사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심청의 효심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효의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오답 해설 ① 작품 전체적으로 볼 때 심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 내용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이를 권선징악적 주제로 보기도 어렵고 현대 소설에서 그러한 주제 의식이 이어지고 있지도 않다. ③ 웃음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는 해학성은 이 글에서 찾기 힘들다. ④ 심청이 뱃사람들과의 신의를 지키고는 있지만, 심청의 이러한 행동이 쉽게 변질하는 현대인에게 교훈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삽입된 한시는 심청과 장 승상 맥 부인이 이별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에게 호소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11 ㉠은 심청의 슬픔을 자연물인 피꼬리와 두견이에 이입한 표현이다. ㉡는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것이 아니라 화자의 상황과 반대되는 자연물인 피꼬리를 제시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피꼬리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의 비애를 새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사랑하는 사람(단종)과 이별한 슬픔을 냇물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단종의 유배로 인한 슬픔을 촛불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입에 대한 그리움을 귀뚜라미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12 동무들의 처지가 심청과 대비되는 것은 맞지만 심청이 그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심청은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동무들을 보며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다.

오답 해설 ㉔: 심 봉사는 떠나는 심청을 붙들고 울며 괴로워하고 있다. ㉕: 심청은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㉖: 동네 사람들은 심청이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㉗: 심청은 인당수의 제물로 가는 것이 꽃이 지듯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운명에 순응하고 있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46~053쪽

1 ④	2 ⑤	3 ③	4 ①	5 ④
6 ②				
7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심청에게 서운해한다. / 심청이 죽게 된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한다. 8 ① 9 ③ 10 ⑤				
11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2 ⑤				
13 심청의 슬픈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14 해설 참고				
15 ①				
16 구어적 표현과 운문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7 해설 참고 18 해설 참고				

1 이 글의 주제는 권선징악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다.

오답 해설 ①, ② 이 글은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장면 등으로 인해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를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재창조되는 것이다. ③, ⑤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심청의 효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다.

2 심청이 장 승상 맥 부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염치가 있고 책임감이 강해서이지, 그동안 장 승상 맥 부인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② "땀 삼백 석을 도로 내어 주면 뱃사람을 일이 낭패이니"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청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한 사람을 하는 짓이니,"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부모를 위해 공을 드릴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를 통해 알 수 있다.

3 아무리 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4 '각골난망(刻骨難忘)'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이라는 뜻으로,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

오답 해설 ② 사면초가(四面楚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③ 각주구검(刻舟求劍):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④ 배은망덕(背恩忘德):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 → ㉠과 반대되는 의미이다. ⑤ 결지해지(結者解之):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5 [A]의 '어두운 밤'은 심청에게 닥친 시련을 강조하는 시어이고, <보기>의 '가을'은 시적 대상인 누이의 요절을 의미하는 '이른 바람'이 부는 때이다. 따라서 둘 다 소생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A]에서 난데없이 불어오는 비바람으로 인해 아름다운 꽃이 날려서 떨어진다는 것은 심청의 죽음을 의미한다. <보기>의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을,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② 마지막 행을 통해 [A]가 부녀간의 이별을 소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향가이다.

6 ㉡는 ㉠과 연결되면서 영원한 이별, 즉 심청의 죽음을 나타내고, ㉢는 심청을 의미하므로, 둘 다 심청의 효심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③ ㉣는 심청의 상황이 운명이라는 인식으로, 장 승상 맥 부인이 심청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임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비바람을 난데없다고 표현한 것은 장 승상 맥 부인이 심청에게 닥친 시련을 갑작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⑤ ㉠에서 인간, 즉 심청이 세상에 귀양살이 왔다는 것을 통해 장 승상 맥 부인이 심청을 하늘의 선녀와 같이 생각함을 알 수 있다.

8 당시에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③ 심청이 심 봉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심청이 인당수의 제물이 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심청이 떠날 때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9 심청은 "부자간 천륜을 끊고 싶어 ~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에서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소리 내어 울며 치마끈을 줄라매고 ~ 었터지며 자빠지며 붙들여 나갈 제'에서 심 봉사와의 이별을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한무제 수양 공주의 고사를 인용하는 사람은 심 봉사가 아닌 심청이다. ② 심 봉사는 심청을 붙들고 뿔뿔히 괴로워하고 있다. ④ 심청의 슬픈 감정이 청산, 강물, 꽃 등의 자연물에 이입되어 표현되었다. ⑤ '한 걸음에 돌아보며 두 걸음에 눈물지며 강머리에 다다르니,'를 통해 심청이 배를 타러 가며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10 ㉠은 서술자가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다. ㉡는 춘향과 이몽룡의 후일담을 서술하고 있을 뿐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의 '어찌 아니 명관(名官)인가.', ②의 '어찌 아니 통분하랴.', ③의 '초목금수(草木禽獸)인들 아니 떨랴.', ④의 '어찌 다 설화하랴.', '어찌 아니 좋은 쓴가?'에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다.

12 이 글의 주제는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다. '간담상조(肝膽相照)'는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귀.'을 뜻하는 말로 효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망운지정(望雲之情):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② 풍수지탄(風樹之嘆):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③ 혼정신성(昏定晨省):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④ 반포지효(反哺之孝):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孝)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

14 모범 답안

<	보	기	>	를	보	면	당	시	사	회	에	서	는	.
효	'	가	매	우	중	요	한	가	치	였	을	을	알	수
있	.	다	라	서	아	버	지	를	위	해	자	신	을	
희	생	하	는	심	청	의	행	동	은	당	시	의	사	회
문	화	적	상	황	에	서	매	우	바	람	직	한	행	동
라	고	할	수	있	다	.								

15 완판본이 유교적 효를 지켜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한편으로 당대 현실을 회의하며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으므로, 완판본이 경판본에 비해 유교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완판본은 경판본보다 훨씬 더 많은 등장인물과 사건을 담고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완판본이 당대 현실을 회의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④ 완판본의 장 승상 덕 부인은 심청이 추구하는 유교적 관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실적 해결 방법을 내놓는 인물이다. ⑤ 완판본의 심 봉사는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인물이므로, 유교적 가치관이 중시되던 당시의 사회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다.

17 모범 답안

심	봉	사	의	꿈	에	서	심	청	이	수	레	를	타
고	가	는	것	은	심	청	의	죽	음	을	암	시	한
그	러	나	심	봉	사	는	이	를	길	몽	으로	해	석
함	으로	써	심	청	의	마	음	을	더	아	프	게	하
며	부	녀	의	이	별	을	더	욱	안	타	깝	게	만
고	있	다	.										

18 모범 답안

명	분	없	이	다	른	사	람	의	도	움	을	받	지
않	는	것	으로	불	때	주	체	적	으로	자	신	의	
문	제	를	해	결	하	는	적	극	적	인	성	격	임
뱃	사	람	들	의	처	지	를	고	려	하	는	것	으로
때	상	대	방	의	처	지	를	이	해	할	줄	아	는
성	격	임	을	,	이	미	정	한	약	속	을	어	기
것	은	못	난	사	람	이	하	는	일	이	라	는	것
로	불	때	약	속	을	중	요	하	게	생	각	하	는
성	격	임	을	,	부	인	에	게	은	혜	를	값	졌
것	으로	불	때	은	혜	에	감	사	할	줄	아	는	
성	격	임	을	알	수	있	다	.					

(3) 현대시 감상하기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백석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57쪽

- 01 (1) ○ (2) ○ (3) ○ (4) ○ (5) ○ (6) × 02 ②
03 ㉠: 편지, ㉡: 의지, ㉢: 갈매나무 04 바람, 추위, 싸락눈

- 01 (6) 화자가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지는 알 수 없다.
02 화자는 박시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수네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다.
04 오답 해설 '북덕불'은 추위에 떨고 있는 화자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 주는 존재이고, '갈매나무'는 고난을 이겨 내는 화자의 의지적 삶을 표상하는 소재이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58쪽

- 04 심표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지만 외형물을 획득한 것은 아니다.
06 화자의 독백적인 어조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08 화자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을 뿐, 가족이 죽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09 화자는 목수네 집에 세 들어 살고 있으며, 화자의 직업이 목수인 것은 아니다.
10 화자는 지나온 시절에 대한 회한과 한탄을 느끼며 암울한 현실에 대해 절망하고 있다.
13 갈매나무는 굳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14 가난하고 고된 화자의 현실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60~065쪽

- 1 ⑤ 2 ④ 3 ⑤ 4 ⑤ 5 ⑤
6 ⑤ 7 그러나 8 갈매나무 9 ⑤ 10 ③
11 ③ 12 ⑤ 13 ⑤ 14 세인

1 '갓, 달옹배기, 북덕불' 등의 향토적 소재와 평안도 방언을 활용하여 토속적인 정감을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다.'라는 신문적인 진술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이 글의 주제는 '무기력한 삶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이다. ③ 갈매나무는 객관적 상관물로, 시련 속에서도 의연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는 현실의 시련과 고난으로 괴로워하지만 운명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다.

2 화자는 고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운명에 대해 인식한 후 고난을 이겨 낼 의지를 다지고 있으므로, 이 글을 바탕으로 강연을 한다면 ④의 주제로 강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1~3행에서 화자가 가족과 떨어져 지냄을 알 수 있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객관적 상관물인 갈매나무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자연물이지만,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는 관련이 없다. ③, ⑤ 이 글과 거리가 먼 주제이다.

3 이 글이 일제 강점기에 쓰여지는 했지만,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화자는 갈매나무를 보며 굳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낼 뿐이다.

오답 해설 ①, ② 화자의 방에 햇살을 깔았으며, 그 방이 습내 나며 춥고 누그러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와 '더러 나뭇손에 싹쓸싹쓸 싸락눈이 와서 문장을 치기도 하는 때'를 통해 배경이 겨울임을 알 수 있다. ④ 화자는 지나온 시절을 새김질하면서 반성하며 절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 이 글의 제목은 '남신의주 유동이라는 지역에 사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이라는 의미로, 현재 화자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① 박시봉이라는 사람이 화자와 유년 시절 절친했던 동무인지는 알 수 없다. ② '햇살을 깔', '습내 나는 춥고, 누그러 방' 등을 통해 화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박시봉이라는 목수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그의 집에 여러 칸이 딸려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④ 이 글의 제목은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으로, 화자의 고향이 아니다.

5 내재적 관점은 작품의 내재적 요소에 근거하는 것이다. ⑤는 외재적 관점(표현론)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③ 화자를 중심으로 감상한 내용이다. ④ 소재를 중심으로 감상한 내용이다.

6 ㉠은 북데기(짚이나 풀 따위가 함부로 뒤섞여서 엉클어진 몽땅이)에 피운 불로, 추위에 떨고 있는 화자에게 따뜻함을 준다. 따라서 고단함을 자극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9 이 글은 산문적 서술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심포의 잦은 활용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공감각적 심상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화자는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역순행적 구성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고 있지 않다. ④ 방언과 토속적 소재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10 ㉠은 외재적 관점으로, 작가가 자신의 체험이나 사상, 감정 등을 작품 속에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작품을 감상하는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작가, 독자, 현실 세계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작품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내재적 관점(절대적 관점)에 해당한다.

11 부정적이었던 화자의 정서는 20행의 '그러나' 이후 긍정적으로 바뀐다. 따라서 ㉠에는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2 '나는 고개를 들어, /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는 하강 이미지가 아닌 상승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절망에서 벗어난 화자의 상태를 표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리움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리었고,'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무릎을 꿇어 보며,'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나뭇손'을 통해 알 수 있다.

13 ㉠은 화자의 내면에 떠오르는 것들을 보여 주는 영사막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반면 ㉡은 화자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대상으로, 영사막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

14 '세인'은 '셀'을 늘여 쓴 것으로, 시적 허용에 해당한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66~073쪽

1 ④	2 ④	3 ⑤	4 ②	5 ④
6 운명	7 해설 참고	8 ②	9 ②	10 ①
11 ④	12 ④	13 ①	14 ㄱ-ㄷ-ㄹ-ㄹ	
15 해설 참고	16 해설 참고	17 ④	18 해설 참고	

1 <보기>는 독자가 작품을 읽고 얻은 교훈과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는 효용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④는 작품을 읽은 후 어려움을 이겨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효용론적 관점에 따른 감상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표현론적 관점 ②, ⑤ 내재적 관점 ③ 반영론적 관점

2 1~4행에서 화자는 고향을 떠나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뜻하는 '사고무친(四顧無親)'이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부창부수(夫唱婦隨):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또는 부부 사이의 그런 도리 ③ 고식지계(姑息之計):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피나 방법. 한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임시로 둘러맞추어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 내는 계책을 이른다. ⑤ 형설지공(螢雪之功): 반딧불·눈과 함께 하는 노력이라는 뜻으로, 고생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를 이르는 말

3 '짜라눈'은 화자에게 시련을 주는 대상으로, 토속적 소재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토속적 소재는 '삿, 밀옹배기, 바우 설, 나뭇손' 외에도 '북덕불'이 있다.

4 ㉠에서 화자는 마음이 진정되면서 내면의 안정을 찾고 있다.

오답 해설 ⑤ 20행의 '그러나' 이후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화자의 태도가 의지적,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에서 무기력하여 어떤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은 화자가 운명에 이끌려 온 삶에 대해 인식하는 부분이다.

7 **모범 답안**

	'갈매나무'	는	먼	산	바위	옆에서	
외롭게	서서	하	안	눈을	맞으며	서	있
다.	이	를	통	해	눈을	맞으며	서
하	게	서	있	는	갈매나무	처럼	시
복	하	고	곳	곳	하게	살아가	겠
의	지	를	드	러	내	고	있

8 ㄱ: '앗, 덜옹배기, 북덕불' 등의 향토적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토속적인 정감을 주고 있다. ㄷ: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통해 화자의 처지와 정서, 내면 의식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ㄴ: 갈매나무를 통해 고난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격정적인 정서를 분출하고 있지 않다. ㄹ: 자연과 인간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지 않다.

9 이 글은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화자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시로, 제목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은 화자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의 주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신의주행 열차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 바로 날도 저물 어서, /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에서 떠올릴 수 있다. ③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에서 떠올릴 수 있다. ④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 그리고 실똥한 부모며 동생들 괴도 멀리 떨어져서,'에서 떠올릴 수 있다. ⑤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우를 꿰어 보며,'에서 떠올릴 수 있다.

10 ㉠은 화자가 지나온 삶을 반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것은 지나온 삶에 대해 반성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 화자는 지나온 시절에 대해 회한과 한탄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에서 화자는 개인의 힘을 초월하는 운명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뜻'과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12 '양금'은 화자의 마음속에 있던 슬픔, 한탄과 같은 어지러운 감정들이다. 따라서 화자에게 닥친 고난, 시련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 '슬내 나는 출고, 누긋한 방'은 화자가 세 들어 사는 방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큰 맥락에서 볼 때 화자의 고된 현실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13 ㉣는 '메마르지 않고 좀 녹녹한'의 뜻이다.

14 ㄱ은 1~8행에서, ㄷ은 9~19행에서, ㄴ은 20~23행에서, ㄹ은 24~32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모범 답안**

이	글	의	제목	은	편지	봉투	에	발신			
주소	를	적	는	형식	으로,	고향	을	떠난			
화자	가	자	신	이	세	들어	사는	집	을	발	
신	주소	로	한	것	이다.	이	러	한	편지		
형식	을	통	해	화	자	가	자	신	의	근	황
야	기	하	는	듯	한	효	과	를	주	며,	고
떠	나	외	롭	고	무	기	력	하	게	살	아
에	서	느	끼	는	화	자	의	내	면	의	식
를	효	과	적	으로	드	러	낼	수	있	다.	

16 **모범 답안**

작	가	가	토	속	성	이	드	러	나	는	시	어	를	쓰
까	닭	은	이	러	한	시	어	들	이	토	속	적	인	정
을	주	기	때	문	이	며,	모	국	어	에	대	한	애	
척	을	드	러	내	기	위	해	서	이	다.	또	한	우	리
민	족	의	고	유	한	언	어	를	사	용	하	여	공	등
의	식	을	고	양	하	기	위	해	서	이	다.			

17 ㉤에서 화자는 개인의 힘을 초월하는 존재인 '운명'에 대해 생각하며 이에 이끌려 온 삶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8 **모범 답안**

<	보	기	>	의	화	자	는	'	거	울	'	이	라	는	스
재	를	통	해	내	면	을	성	찰	하	며	자	아	주	체	
성	을	회	복	하	고	싶	은	소	망	을	드	러	내	고	
있	는	데,	자	신	의	내	면	을	들	여	다	본	다	는	
점	에	서	이	글	의	화	자	와	공	통	점	이	있	다	
고	할	수	있	다.	그	러	나	이	글	의	화				
자	는	시	상	의	전	환	을	통	해	새	로	운	삶	에	
대	한	의	지	를	드	러	내	고	있	는	데	반	해,		
<	보	기	>	의	화	자	는	분	열	된	자	아	에	대	해
안	타	까	움	을	느	낄	뿐	두	자	아	가	화	해	에	
이	르	지	는	못	하	고	있	다.							

(4) 현대 소설 감상하기

삼포 가는 길_황석영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77~083쪽

- 01 (1) ○ (2) ○ (3) ○ (4) × 02 ⑤
 03 ㉠: 산업화, ㉡: 유대감 04 갈 곳이 없음.
 05 (1) ○ (2) ○ (3) × (4) ○ (5) ○ 06 ④
 07 ① 08 팔 시루떡
 09 (1) ○ (2) ○ (3) ○ (4) ○ (5) ○ (6) × 10 ④
 11 ⑤ 12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13 (1) ○ (2) ○ (3) ○ (4) × (5) ○ (6) ○ 14 ①
 15 ②
 16 • 과거의 삼포: ㉠, ㉡, ㉢ • 현재의 삼포: ㉣, ㉤, ㉥, ㉦, ㉧, ㉨

01 (4) 인물들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수록 부분은 영달 일행이 감천으로 가는 길에 벌어진 사건에 해당한다.

02 어두워진 길을 걷다가 백화가 넘어져 다치자 영달은 백화를 챙기는 따뜻한 행동을 보이고, 이를 통해 인물들 간에 정서적인 유대감이 형성된다. 따라서 날이 어두워지면서 인물들이 내면적으로 더 고민하거나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조용히 틀어박혀 집의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라는 백화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목지가 생각나서 는 서울이 화끈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영달은 밭이 뻥 백화를 업으며 백화에게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 ④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향 아닌가…….”라는 정 씨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05 (3) 백화는 영달에게 호감을 느끼고 자신의 고향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한다.

06 정 씨는 영달에게 여비가 있다고 물어보고 있지만, 여비를 모아서 백화에게 주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백화가 자기 몫의 팔 시루떡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라는 백화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일자리가 있는 데면 어디든지 간다는 영달과 달리 정 씨는 고향인 삼포로 가려 하고 있다. ⑤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에 또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7 영달은 고향에 함께 가자는 백화의 제안에 섣뜻 결정하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는데, 이는 내적 갈등이라 할 수 있다.

09 (6) 백화는 정 씨와 영달의 친절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깨닫고 자신도 그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분명을 밝히고 떠난다. 백화가 영달이 자신의 고향에 찾아오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0 백화는 영달의 배려에 대한 고마움과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 눈이 붉게 충혈된 것으로, 영달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11 ㉠은 영달이 떠나는 백화를 위해 비상금을 털어 마련한 것으로,

백화를 향한 영달의 마음과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사이에 생겨난 유대감을 드러낸다. 영달이 백화를 빨리 보내고 싶어서 백화에게 ㉠을 사 준 것은 아니다.

12 영달은 고향에 함께 가자는 백화의 제안에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정 씨에게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라고 말하며 백화와 함께 가기 어려운 이유를 밝힌다. 즉, 영달은 살림을 차려 정착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백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13 (4) 영달은 노인에게서 삼포의 소식을 듣고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라고 말한다. 노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정 씨이다.

14 영달은 정 씨가 마음의 안식처로 여기는 고향인 삼포에 동행하고 있을 뿐이며, 삼포를 단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15 눈발과 어둠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 따라서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으로 향한다는 것은 영달과 정 씨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6 ‘고기잡이’, ‘감자’, ‘나룻배’는 정 씨의 기억 속 과거의 삼포의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이와 달리 ‘도자’, ‘방독’, ‘추력’, ‘관광호텔’, ‘공사판’, ‘신작로’는 산업화된 현재의 삼포의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84쪽

01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액자식 구성이 아니다.

02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 모두의 내면과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04 독백을 통한 상황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06 인물들은 처음에는 서먹한 관계에 있었지만 길을 함께 가며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로 변화한다.

15 정 씨와 영달의 삶에 대해 정확한 결말을 짓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물질문명의 이기에 대한 여운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인물들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86~093쪽

- 1 ② 2 ② 3 ③ 4 ① 5 ②
 6 ④ 7 ⑤
 8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9 눈발, 어둠 10 ④ 11 ② 12 ⑤ 13 유대감
 14 삼포는 뜨내기로 살아온 정 씨가 생각하는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이며, 산업화로 인해 본연의 포근함과 인락함을 잃어버린 농어촌이다.
 15 백화가 영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1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작품 밖에 존재하는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파악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③ 인물의 내면이 서술되고는 있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독백적 어조도 드러나지 않는다. ④ 3인칭(작가)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⑤ 작품 밖에 서술자가 존재하므로 서술자가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으며, 거리를 두고 사건을 관찰하고 있지도 않다.

2 정 씨는 고향인 삼포가 몰라보게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린다. 따라서 고향에 정착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정 씨 역의 배우에게 주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백화는 술집을 전전하던 작부였지만 영달, 정 씨에게 마음을 열며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노인인 영달과 정 씨에게 삼포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영달, 정 씨, 백화는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하층민으로, 세 인물 사이에는 유대감이 형성된다.(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⑤ 영달은 공사편을 떠돌아다니는 노동자이지만, 다리를 다친 백화를 업고 가거나 백화에게 기차표와 빵, 달걀을 사 주는 모습을 통해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다.

3 ㉠은 작품 내적인 요소에 주목하는 내재적(절대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반영론적 관점 ②, ⑤ 표현론적 관점 ④ 효용론적 관점

4 ㉠은 영달이 백화에게 집에 가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묻는 행동으로, 백화에 대한 호감과는 거리가 있다.

5 ㉠은 과거 삼포의 모습과 관련된 소재이다.

오답 해설 ㉡, ㉢, ㉣, ㉤: 산업화로 인해 변해 버린 현재 삼포의 모습과 관련된 소재들이다.

6 영달이 공사편으로 변해 버린 삼포에서 일자리를 잡자고 하는 것을 통해 뜨내기 노동자의 불안정한 삶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달과 정 씨가 갈등을 겪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화로 인해 서로 갈등하는 소외 계층의 비극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산업화되어 변해 버린 삼포와 정 씨의 마음속 고향인 삼포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② 변해 버린 삼포의 소식을 듣고 정 씨가 낙담하는 것을 통해 산업화가 사람들의 마음에게까지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③ 떠돌아다니던 인물들이 유대감을 느끼는 것을 통해 그들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⑤ 정 씨는 공사편이 되어 버린 삼포의 소식에 낙담하며 마음의 고향을 상실하는데, 이를 통해 산업화로 소외된 계층의 비극적 삶이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7 계절적 배경인 겨울은 인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눈은 인물들에게 시련을 주는 대상으로, 순수한 삶이나 자연 친화적인 정서와는 관련이 없다. ③ 아직 초저녁인데도 곧 어두워진다는 것은 인물들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음을 보여 주므로, 아침을 준비하는 희망적인 시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영달이 고향에 빠진 백화를 도와주는 것은 그녀에 대한 호감에서 나온 행동으로, 삶의 고난 극복과는 관련이 없다.

10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대화, 행동을 서술하고 있으나, 서술자의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부분은 없다. 서술자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직접 드러낸 것은 편집자적 논평으로, 주로 고전 소설에 등장한다.

오답 해설 ① 영달, 정 씨, 백화는 길을 함께 가며 서로 교감하고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② 인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며 극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③ 마치

막 문장에서 서술 대상을 인물 중심에서 객관적 대상인 기차로 변화시킴으로써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⑤ 영달과 정 씨의 투박한 말투를 통해 떠돌이 노동자의 애환을 드러내고 있다.

11 백화가 영달에게 자신의 고향에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고향을 장소로서 영달과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영달은 고향에 함께 가자는 백화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영달에게 있어 백화의 고향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공간일 뿐이다. ③ 삼포는 정 씨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장소로서 작용하는데, 정 씨가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 그가 장소에 대한 그리움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현재 영달에게 삼포는 공간일 뿐이지만, 만약 영달이 삼포에 가서 그곳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삼포는 그에게 장소가 될 수 있다. ⑤ 삼포는 정 씨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이다. 그러나 현재 산업화로 변해 버린 삼포 소식을 들은 후 정 씨가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보아, 장소로서의 삼포의 성격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12 ㉠은 산업화가 물고 온 변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드러난 부분으로,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잃은 인간의 오만함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영달, 정 씨, 백화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암시한다. ㉢: 영달은 백화에게 측은함을 느끼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 백화를 따라가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 함께 가지 못하는 영달의 고민이 드러나 있다. ㉤: 백화는 영달의 배려에 대한 고마움과 그와의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94~101쪽

1 ④	2 ①		
3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민중들의 애환과 유대감			
4 산업화 과정에서 고향을 상실하고 소외된 민중들의 고달픈 운명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기 위해서이다.			
5 정 씨가 마음의 안식처인 고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6 ⑤	
7 ②	8 ①	9 ④	10 ②
12 ①	13 해설 참고		

1 백화, 영달, 정 씨는 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촌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소외된 이웃을 먼저 돌보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③ 백화, 영달, 정 씨는 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촌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며 시대적 전형성을 보여 준다. ⑤ 백화, 영달, 정 씨는 정처 없이 떠돌지만 함께 동행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2 ㉠은 고향에 함께 가자고 한 자신의 제안을 영달이 고민하자 백화가 불안하게 바라보는 모습이다.

오답 해설 ㉡: 백화는 인간적 정을 나누는 영달과 정 씨에게 마음을 열며 자신의 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백화를 비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백화에 대한 연민과 미련에서 나온 말이다. ㉣: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잃은 인간의 오만함을 비판하며, 산업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 인물 중심에서 객관적 대상인 기차로 서술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 여운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 씨와 영달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6 길에서 우연히 만난 세 사람이 서로에게 인간적인 정을 느끼고 있지만,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해소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정 씨는 변화된 삼포의 소식을 들은 후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리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백화는 고달픈 술집 생활에서 도망쳐 나왔고, 영달은 공사편을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정 씨는 떠돌아다니는 막노동꾼으로 고향인 삼포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②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밝힌 것은, 인간적 정을 나누는 영달과 정 씨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 주는 행동이다. ③ 노인은 영달과 정 씨에게 삼포가 이미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음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④ 영달이 백화를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백화와 살림을 차릴 만한 경제력이 없는 떠돌이 신세이기 때문이다.

7 급속한 산업화의 모습은 변화된 삼포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과 급속한 산업화의 모습은 연관 짓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영달은 공사편을 전진하는 막노동꾼으로,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농어촌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떠돌이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③ 정 씨가 가고자 하던 고향인 삼포는 고기잡이나 하고 김치나 매던 곳으로, 농어촌 공동체가 해체되기 이전의 공간이다. ④ 삼포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변해 버렸다. ⑤ 백화는 고달픈 술집 생활에서 도망쳐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인물로, 떠돌이 노동자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8 과거의 '삼포'는 산업화 이전의 훼손되지 않은 농어촌 공동체로, 정 씨에게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정신적인 안식처였다. 하지만 현재의 '삼포'는 산업화로 인해 본원적인 가치가 훼손되어 버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이다. ③ ㉡는 정 씨가 꿈꾸던 이상적인 공간이지만, 그곳을 비현실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 ㉣ 모두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⑤ ㉤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훼손된 공간이다.

9 <보기>에서는 정 씨가 삼포에 도착할 때까지 변화된 삼포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라)와 <보기> 모두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변해 버린 삼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② <보기>에서는 버스 차장과 정 씨의 말다툼을 삽입함으로써 변해 버린 삼포의 현실을 실감 나게 보여 주고 있다. ③ (라)에서는 영달이 삼포에서 공사편 일이나 잡자고 말할 뿐이지만, <보기>에서는 영달이 공사편을 가리키며 살판났다고 지적하는데, 이를 통해 정 씨와 영달의 입장 차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⑤ (라)에서도 정 씨는 십 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고 있으며 영달과 삼포까지 동행하기로 하는데, 이러한 설정은 <보기>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10 <보기>는 백화와 같이 가면 살림을 차릴 수도 있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에는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의 '일거양득(一舉兩得)'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아전인수(俄田引水): 자기 눈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④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⑤ 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11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향을 상실한 떠돌이 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반성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과는 거리가 멀다. ③, ④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대화와는 관련이 없다. ⑤ 산업화로 인해 떠도는 하층민들의 소외를 다루고 있지만,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12 기차의 연착으로 사람들이 불편을 겪기는 하지만, 그 자체를 좌절이나 불만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② 노인은 정 씨와 영달의 행색을 본 후 그들이 일거리를 찾으러 간다고 짐작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③ 이어지는 노인의 말("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을 통해 노인이 신작로로 대표되는 삼포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④ 노인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번고, 즉 재앙이나 사고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상인심의 변화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정 씨가 마음의 정처를 잃었다는 것은, 찾아가려고 마음먹었던 고향인 삼포가 그 의미를 상실했음을 뜻한다.

13 **모범 답안**

이	글	은	정	씨	와	영	달	의	삼	포	에	대	해
정	확	한	결	말	을	짓	지	않	음	으	로	씨	, 산
화	과	정	에	서	고	향	을	상	실	하	고	소	외
민	중	들	의	고	달	픈	운	명	이	끝	나	지	않
계	속	될	것	임	을	암	시	하	고	있	다	.	이
고	전	소	설	<	심	청	전	>	에	서	심	청	이
한	결	말	을	맞	는	것	과	차	이	가	있	다	.

해결해 봅시다

(1) 문제 해결의 길잡이

로봇 시대, 인간의 일 구분권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07~109쪽

- 01 (1) × (2) ○ (3) ○ (4) ○ 02 ③ 03 ②
 04 ㉓: 부족, ㉔: 위협
 05 (1) ○ (2) ○ (3) × (4) ○ (5) ○ 06 ②
 07 ⑤ 08 감정, 의지

- 01 (1) 세계적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의 말을 인용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02 1과 2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발달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3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인공지능 발달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② 3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1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2에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03 스티븐 호킹의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말을 통해,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갖게 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05 (3) 3의 마지막 문장에서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은 인간의 감정과 의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 06 4에서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은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의 과제라고 하였다. 각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3의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3의 ‘인류는 진화의 세월을 거쳐 공감과 두려움,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 왔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5의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끼는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 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5의 ‘처음 마주하는 위협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 왔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07 6에서 글쓴이는 인간 고유의 속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인공지능 시대라는 변화 속에서도 인간과 로봇이 공존·공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 08 3에서 감정과 의지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라고 하였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110쪽

- 01 설명적인 태도로 글쓴이의 생각을 전달하는 논설문이다.
- 05 인공지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기술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08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구분될 것이다.
- 10 감정과 의지는 인공지능이 따라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특성이 다.
- 11 인간은 결핍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체득하였다.
- 14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12~117쪽

- 1 ③ 2 ③ 3 ② 4 ⑤ 5 축복, 재앙
 6 ⑤ 7 ⑤ 8 ①
 9 ㉔: 감정, 의지, ㉕: 유연성, 창의성 10 공존, 공생 11 ③
 12 ③ 13 ④ 14 ②

- 1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원리를 분석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의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② 2문단에서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 제기에 타당성을 더하고 있다. ④ 인공지능의 발달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⑤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로 로봇을 향한 길과 인간을 향한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2 스티븐 호킹은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 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므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답 해설 ① 인공지능은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통제를 벗어 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1문단에서 인공지능은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③ 3문단에서 인공지능, 즉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신기술의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밑바닥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 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여전히 구분된다고 했다.
- 3 ②는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중 인간을 향한 길과 관련된 해결 방안이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중 로봇을 향한 길과 관련된 해결 방안이다.
- 4 ㉔ 앞의 ‘분명한 것은 인류가 이제껏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와 마주했다는 점이다.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신기술의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1 ⑤	2 ②	3 ④	4 ③	5 ④
6 ⑤	7 ④	8 ③	9 ②	10 해설 참고
11 ④	12 ④	13 ③	14 해설 참고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신기술인데 그로 인해 인류가 예상치 못한, 접해 보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스티븐 호킹에 의하면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 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다. ② '분명한 것은 인류가 이제껏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와 마주했다는 점이다.'로 볼 때 과거에도 유사한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인간이 기계를 만들어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은 인류가 지금까지 접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④ 이 글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6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오답 해설 ①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이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② 인공지능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 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으므로, 인간이 모든 특성에서 인공지능을 능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인간과 기계는 경쟁이 아니라 공존하고 공생해야 한다. ④ 인간의 유연성과 창의성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7 인간은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역사와 문명을 발달시켰으며,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체득하였다. 이러한 유연성과 창의성은 기계에게는 가르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성이다.

8 ㉠은 '내용이나 성격·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을 의미한다.

11 인간이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체득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발휘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인간이 가지는 약점으로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번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이 언급되어 있다. ② 인간은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감정과 의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④ 기술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은, 다양한 상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이 작동하게 하는 방법이나, 로봇이 스스로 무력화할 수 없는 원격 자폭 스위치를 넣는 것 등이다. ⑤ 입법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은,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게 하는 방법이나, 실인 로봇을 막는 국제 규약을 제정하는 것 등이다.

12 인간만의 특징으로 이 글은 감정과 의지를 든 반면, <보기>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들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는 인간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규범을 공유한다고는 했지만, 규칙성과 규범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이 글에서도 인간의 규칙성과 규범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에서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기술적,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인공지능에 규범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에서도 기계는 인공지능 설계자가 부여한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만 작동한다고 했을 뿐, 인공지능에 규범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④ <보기>에서는 인간들끼리의 상호 작용을 말하고 있을 뿐, 인간과 기계의 상호 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인간과 인공지능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13 (라)는 개개인이 고민해 보아야 할,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의 필요성이 가지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

14 (나)에서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어 인간과 인공지능이 구분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감정과 의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보기>는 (나)의 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 이 글은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설문이다.

오답 해설 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안전과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반성의 추구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인공지능의 발달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미지의 영역이며 미래 사회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격렬한 공방을 가져올 주제라고 했을 뿐, 미래의 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입법적,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2 인공지능이 꾸준히 발전하며 개발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통제 문제의 문제가 대두된 것일 뿐, 인공지능 통제가 인공지능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기술적 차원과 입법적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통제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③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 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구분될 것이라고 했다. ④ 인공지능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격렬한 공방을 가져올 주제라고 했다. ⑤ 인공지능의 발달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밑바닥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3 <보기>에는 무인 발권기로 인해 곤란을 겪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어려움에 대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③ <보기>에서 무인 발권기는 매표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으로 감정과 의지를 들고 있는데, <보기>의 무인 발권기는 이러한 감정과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다. ⑤ '세계적 석학들이 인공지능 ~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를 통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 내는 것에 대해 우려함을 알 수 있다.

4 <보기>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일을 증강시킨 사례이다. 이로 볼 때 인간 고유의 특징을 잘 활용하여 심층 보도, 소스 개발, 자료 확보, 인맥 관리, 회사 대표 인터뷰 등을 한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기계와 공존·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5 인간의 감정은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특징이므로, 감정을 공유하는 사회 복지나 상담 업무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다.

6 인간 고유의 특징인 감정과 의지는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분하게 해 주는 것으로, 감정과 의지를 바탕으로 한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어야 한다.

7 이 글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과 기계가 공존·공생할 수 있는 길'이다.

8 <보기>의 로봇은 이 글의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런데 ㉠은 <보기>의 로봇의 본연의 임무로, 이 글의 인공지능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9 <보기>는 인간이 하기 힘든 부분을 기계가 대신하는 예로, 인간

과 기계가 서로 공존, 공생함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 수술하는 것은 인간의 통제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③ 인간이 하기 힘들거나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 주며 이것이 의료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④ 이 글에 따르면 인간은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의료용 로봇을 다루는 능력을 지니는 것도 그중 하나이다. ⑤ 인간이 하기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모습이므로, 다빈치 로봇의 사용은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예라 할 수 있다.

10 모범 답안

〈보기〉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
해 현대인이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두뇌의 기억 용량이 감소하고
기억력이 쇠퇴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발달한
디지털 기술과	공존하면서, 기억 대신
더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된 검색의 뇌
기능을 발달시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1 문제 해결을 위해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하며 읽어야 한다.

12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은 로봇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규범적 규제를 고안해 내야 한다.

오답 해설 인공지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게 하거나(①), 살인 로봇을 막는 국제 규약을 제정해야 한다(②). 또한 다양한 상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이 작동하게 할 수도 있으며(⑤), 설계자의 의도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로봇이 스스로 무력화할 수 있는 원격 자폭 스위치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③).

13 〈보기〉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CPU의 성능이 계속 발전할 경우 필요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규칙을 부여하는 설계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스티븐 핑커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으므로, 복잡한 정신 작용을 분석·분해·적용하면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여지껏 인공지능은 설계자가 부여한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만 작동했지만, 최근 들어 규칙들을 경험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바꾸어 가는 경지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했으므로, 인공지능도 앞으로 상호 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인간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규칙을 습득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최근 인공지능도 규칙들을 경험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바꾸어 가는 경지에 이르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과 매우 근접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의 두 번째 문단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인간만의 특성이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지만,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알고리즘으로 보는 스티븐 핑커는 그러한 의견에 반대할 것이다.

14 모범 답안

결 필 과	고 통 은	인 간 이	가 지 는	약 점 인
데, 인	간 은	이 러 한	약 점 을	기 계 에
여 하 지	않 는	다. 하 지	만 이	결 필 과
통 같 은	약 점	에 서	벗 어 나	기 위 해
하 는	과	정	에 서	인 간 은
을	체	득	하	게
기 계	에	가	르	칠
인	간	의	약	점
인	간	답	게	만

(2) 함께 웃는 협상

추모 공원 건립에 대한 협상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29~135쪽

- 01 (1) ○ (2) ○ (3) ○ (4) × (5) ○ (6) ○ 02 ⑤
- 03 ⑤ 04 ㉠: 환경 오염, ㉡: 집값 하락
- 05 (1) ○ (2) ○ (3) ○ (4) ○ (5) ○ (6) × 06 ④
- 07 ③ 08 ㉢: 문제, ㉣: 이해
- 09 (1) ○ (2) ○ (3) × (4) ○ (5) ○ (6) ○ 10 ①
- 11 ④ 12 ㉠: 15기, ㉡: 주민 대표, ㉢: 감축
- 13 (1) ○ (2) ○ (3) × (4) ○ (5) ○ 14 ①
- 15 ⑤
- 16 시립 의료 시설과 종합 체육관을 함께 유치해 주십시오.

01 (4) 푸른시 관계자는 화장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새 화장 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02 초록구 대표는 구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초록구에 추모 공원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구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 초록구에서는 화장장 건립을 받아들일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푸른시 관계자는 화장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초록구 대표도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푸른시에서 추진하는 추모 공원 건립 사업이 시 차원에서 필요한 일인 것은 알겠지만,”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④ 초록구 대표는 화장 시설을 건립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푸른시 관계자는 “초록구에서는 환경 오염과 집값 하락의 가능성을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확보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03 푸른시 관계자는 이미 확보된 기술로 환경 오염과 집값 하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추모 공원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추모 공원 건립을 위해 초록구에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5 (6) 푸른시 관계자는 향류형 화장로를 설치하면 다이옥신과 수은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06 푸른시 관계자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언급한 것은, 해외에서는 화장장이 주택가에 위치할 정도로 현대화, 보편화되어 있음을 말한 것으로, 화장 시설 설치가 주민에게 큰 불편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푸른시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화장장이 혐오 시설로 여겨지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푸른시 관계자는 추모 공원이 문화 시설로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초록구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여 화장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을 수정하고 있으며, 화장장이 있다는 것이 최대한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초록구 대표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설계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화장 시설 설치 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무 사항으로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07 초록구 대표가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푸른시 관계자가 다이옥신과 수은 등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향류형 화장로를 설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09 (3) 초록구 대표의 화장로 규모 축소 요구에 대해 푸른시 관계자는 화장로 15기 설치의 최소 요구 사항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 10 최소 규모로 화장로 15기를 설치하고 하루에 6회씩 운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화장로 20기를 설치해 하루에 8회씩 운용하는 것은 원래 계획이었다.
- 11 향류형 화장로의 다이옥신 배출은 소각 시설 허용 기준의 10분의 1 이하이며, 수은 배출은 기준치의 1,000분의 1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향류형 화장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수은의 양은 미미하지만 전혀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13 (3) 푸른시 관계자는 초록구의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14 푸른시 관계자는 초록구의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시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 15 화장로 15기 설치 및 1일 각 6회 운영 보장은 푸른시가 협상을 통해 얻어 낸 결과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록구에서 협상을 통해 얻어 낸 결과이다.
- 16 초록구 대표는 기반 시설의 부족을 근거로 시립 의료 시설과 종합 체육관을 함께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136쪽

- 03 푸른시 관계자가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내세운 적은 없다.
- 04 푸른시 관계자는 화장 시설 설치를 지방 자치 단체의 의무 사항이라며,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 05 푸른시 관계자는 초록구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 봉안당과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최소 필요 시설인 화장장만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초록구 대표는 화장 시설 15기는 꼭 필요하다는 푸른시 관계자의 최소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고 있다.
- 06 푸른시 관계자는 화장로 규모는 양보하기 어렵다며, 화장 시설 15기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 08 초록구 대표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초록구에 의료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 10 푸른시 관계자는 자신들의 최소 요구 사항인 화장 시설 15기 설치는 포기하지 않았다.
- 11 토의에 대한 설명이다.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 13 협상을 할 때에는 진행 상황에 따라 원안을 수정할 수 있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38~145쪽

- | | | | | |
|---------------------------------------------------------------------------------------------------------------|------------------------------|------|------|-----|
| 1 ㉠ | 2 ㉡ | 3 ㉢ | 4 ㉣ | 5 ㉤ |
| 6 ㉥ | 7 초록구 하늘산 일대 추모 공원 건립에 대한 협상 | | | |
| 8 서로의 입장이 다르지만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 | | |
| 9 • 시작 단계: ㉠, ㉡ • 조정 단계: ㉢, ㉣ • 해결 단계: ㉤ 10 ㉥ | | | | |
| 11 ㉢, ㉤ | 12 ㉡ | 13 ㉢ | 14 ㉤ | |
| 15 ㉡: 타협, ㉣: 조정 | | | | |
| 16 상대방의 배려를 인정하고 협력적으로 대화할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 | | | |
| 17 • 지상에 나무숲 공원을 조성하고 방문객이 출입하는 곳은 이 나무숲에 가려지게 설계하여 땅에 묻힌 듯 드러나지 않는 건물을 짓는다. • 외부에서는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지붕만 보이도록 한다. | | | | |

- 1 이 글은 협상이다.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주장과 설득을 통해 상호 경쟁하는 것은 토론이다.

오답 해설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경쟁적으로 협력하며(㉠) 논쟁과 협의를 통해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초점을 둔다(㉡).

- 2 협상 중에는 진행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요구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수위보다 높은 요구 사항을 설정하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

- 3 처음에 협상을 시작하면서 초록구 대표는 추모 공원 건립에 대해 화장 시설 가동으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와 혐오 시설 설치에 따른 집값 하락(㉠) 등 지역 주민이 입을 피해를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나과 큰 초록구 대표가 언급한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권위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아직 우리나라에서 화장장이나 묘지가 혐오 시설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화장 시설 설치의 지방 자치 단체의 의무 사항으로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주거 조건 하락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을 포함한 추모 공원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외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5 푸른시 관계자는 추모 공원이 문화 시설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초록구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 봉안당,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화장장만 설치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초록구 대표는 수정안 제시에 감사를 표하며(㉠) 화장 시설 및 진입로에 대해 푸른시 관계자가 수용 가능한 요구를 제시하였다(㉡). 이에 푸른시 관계자는 초록구의 요구를 반영하여 화장장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 6 푸른시 관계자는 푸른시에 화장 시설이 하나밖에 없음을 제시하며 초록구 대표의 주의를 끌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초록구 대표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며, 초록구 대표의 주장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 ③ 푸른시 대표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④ 화장 시설 수요자가 겪는 불편을 추가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초록구 대표의 상황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⑤ 초록구 대표는 하늘산에 추모 공원을 건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그 요구안을 선결해야 함을 말하고 있지 않으며 양보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10 L: 푸른시 관계자와 초록구 대표는 쟁점이 되는 문제, 즉 화장장 및 화장로에 대한 각자의 처지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C: 푸른시 관계자는 초록구의 입장을 고려하여 향류형 화장로를 설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초록구 대표는 화장로의 15기 운용이라는 푸른시 관계자의 최소 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G: 협상의 시작 단계의 특징이다.

11 푸른시 관계자는 초록구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한 유해 물질 제거 노력(㉔)과 환경 감시 제도를 통한 시설 관리 강화(㉕)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초록구 대표가 요구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푸른시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다. ② 푸른시 관계자가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 ④ 푸른시 관계자가 시립 의료 병원 이전 대신 상업적 시설을 유치한다고 발언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2 ㉔은 연소 물질을 화장로 내부에서 연소하므로 매연가스가 밖으로 바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㉕ 다이옥신과 수은의 배출량이 미미하다고 하였다.

13 ㉔는 상대방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부가 설명을 하려는 것이다.

오답 해설 ㉔: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㉕: 향류형 화장로가 유해 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하지만, 결국은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㉖: 초록구 대표가 화장장 및 화장로의 규모를 반으로 축소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푸른시 관계자는 이러한 초록구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최소 요구 사항을 내세우고 있다. ㉗: 생활 편의 시설 유치는 초록구 주민이 입을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요구 사항이다.

14 ㉔: '푸른시는 초록구 하늘산 일대에 화장장 시설을 포함한 추모 공원을 건립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㉕: '화장 시설과 진입로를 지하화하여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㉔: 구민 피해 보상 차원의 대안은 의료 시설 이전 또는 건립으로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㉕: 환경 문제 발생 시 화장로 가동 횟수를 감축한다고 했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46~153쪽

- 1 ㉔ 2 ㉔ 3 ㉔ 4 해설 참고 5 ㉔
- 6 타협 전략 7 해설 참고 8 ㉔ 9 ㉔
- 10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조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11 ㉔ 12 ㉔ 13 해설 참고

1 상대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협상의 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보기>는 광역 화장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매우 적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푸른시 관계자가 향류형 화장로의 장점을 부각하면서 덧붙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3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㉔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4 모범 답안

화장로	15기	설치가	푸른시의	최소
요구 조건	임을	알고,	협상 진행	과정
에서 원안을	적절히	수정하여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려 하기 때문이다.				

5 반찬 수를 늘려 급식의 질을 높여 달라는 학생회 측의 의견과 급식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급식비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급식업체 대표의 갈등이 협상의 주제이다.

6 초록구 대표는 푸른시 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생활 편의 시설 유치를 제시하고 있다.

7 모범 답안

초록구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
은 의료 시설 이전이다.	현재 시립		
의료 병원 시설이	낙후하여	이전을	검
토하고 있기 때문에	초록구로의	이전을	검
우선순위로 하겠다	는 것이다.	반면	수
용하지 않는 내용은	중합체	육관	건설
이다.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	초록
구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체육관을	총
분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8 협상은 상대방과 자신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상대방의 만족도도 고려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충돌하여 갈등을 겪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협상이다. ② 협상에서 상대방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쉽게 양보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③ 말 이외에도 협상자가 표현하는 절망, 실망, 분노 등이 협상의 전략이 될 수 있다. ⑤ 협상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되는 문제나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9 아이들은 각자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한 명은 오랜지 껌질을, 한 명은 오랜지 과육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서로 원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1 G: '다행인 것은 양자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는 와중에도 협상을 결렬시키지 않고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만남과 대화를 계속 이어 갔다는 점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 '토지 공사와 택지 소유자들은 일부 지역의 개발을 못 하게 되었으나 그 대신 환경 보존에 동참한다는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얻었다. ~ 환경 단체는 현실적으로 승산이 적은 상황에서 최대한 환경을 보전하는 방안을 도출했으며, 사회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L: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은 인용되지 않았다. C: 양측이 화려한 언변을 사용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12 파이를 키운다는 말은 나누어 먹을 파이의 크기를 키워 각자 나누어지는 분량을 결과적으로 많게 한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 토

지 공사, 택지 소유자들은 환경 보존에 동참한다는 긍정적인 사회 인식과 함께 개발 지구의 경제적 가치 상승이라는 이익을, 환경 단체는 최대한 환경을 보전하며 사회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은 토지 공사, 택지 소유자들, 환경 단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은 것을 뜻한다.

13 모범 답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아리 발표
회를 하게 된	벤드부와	연극부가 모두
강당을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1 회 중간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본문 154~159쪽

01 ㉠	02 ㉠	03 ㉠	04 밤(시간)	05 ㉠
06 ㉠	07 ㉠	08 결혼보은	09 ㉠	10 ㉠
11 ㉠	12 ㉠: 눈물, ㉠: 운명	13 ㉠	14 ㉠	
15 해설 참고				

01 (나)는 화자가 자신을 ‘낙락장송(落落長松)’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지만, (가)와 (다)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가)에서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은 시적 대상인 누이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가)~(다) 모두 화자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꿈꾸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다) 모두 시상이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③ (가)에는 화자의 슬픈 정서가, (나)에는 절개를 지키려는 화자의 정서가, (다)에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⑤ (가)~(다) 모두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02 ‘봉래산(蓬萊山) 제일봉’은 화자를 의미하는 ‘낙락장송(落落長松)’이 있는 곳으로, 수양 대군 일파와는 상관이 없다.

오답 해설 ② ‘낙락장송(落落長松)’은 지조와 굳은 절개를 상징한다. ③ ‘백설’은 왕위를 찬탈한 수양 대군 일파로, 화자는 이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 ④ ‘백설’이 ‘만건곤(滿乾坤)’하다는 것은 수양 대군의 득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화자에게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독야청청(獨也靑靑)’은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절개를 지키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03 ㉠은 미래에 화자가 죽은 누이와 재회할 극락세계이다.

05 심청은 가난한 형편에도 앞을 못 보는 심 봉사를 극진하게 모시고, 결국 심 봉사를 위해 죽음까지 선택한다. 그러나 이후 연꽃을 타고 환생하여 황후가 되고, 심 봉사와 재회한 후 심 봉사가 눈을 뜨게 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오답 해설 ① 심청이 실천하고 있는 효는 유교적 가치관이다. ② 이 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행복한 결말 구조를 지닌다. ③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영웅은 등장하지 않는다. ⑤ 효성이 지극한 심청이 심 봉사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가 후에 황후가 되는 내용은, 재능과 외모가 뛰어난 여성의 주체적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06 [B]에서 심 봉사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강조하며, 뱃사람들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심 봉사는 겸손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며, [C]에서 장 승상덕 부인이 심청에게 쌀 삼백 석을 준다는 것은 심청을 살리기 위함이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다. ② [A]에서 심 봉사는 심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 의도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A]에서 심 봉사는 꿈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⑤ [C]에서 장 승상덕 부인은 심청의 효성이 지극함을 인정하면서도 심청이 제물로 죽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07 심 봉사가 꾸 꿈은 심청의 죽음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09 화자가 달옹배기에 담긴 북덕불에 손을 짚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으나 달옹배기를 얻게 된 경위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이 슬내 나는 춤고, 누곳한 방’에서 알 수 있다. ③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헛 샷을 깬 / 한 방에 들어서 집을 불어었다.’를 통해 집주인의 직업이 목수임을 알 수 있다. ④ 제목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을 통해 집주인의 이름이 박시봉임을 알 수 있다. ⑤ ‘어두워 오는데 하이아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인세에는, /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길매나
무'를 통해 알 수 있다.

- 10 20행의 '그러나' 이전에 화자는 외로움과 쓸쓸함, 무기력함, 좌절과 절망, 회한과 슬픔,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을 느끼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내면의 안정을 얻고 경건함과 겸허함을 느끼며,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다지고 있다.
- 11 이 글의 제목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은 편지 봉투에 발신 주소를 적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화자의 상황을 알려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상이 역순행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다. ② 평안도 방언과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토속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③ '하아니 눈을 맞을' 등에 색채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색채 대비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 ④ 단일 화자 '나'가 독백을 하듯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13 정씨는 십 년 만에 고향인 삼포에 가는 상황이고, 노인의 아들은 삼포에서 공사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 씨에 비해 삼포의 변화된 모습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노인이다.
오답 해설 ① 영달이 정 씨에게 "잘됐군. 우리 거처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라고 한 것은 정 씨의 괴로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영달이 자신과 처지가 같아진 정 씨를 보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② 노인이 영달과 정 씨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의 고향이 삼포라고 확신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노인의 아들은 삼포에서 도자를 끄는 일을 하는데, 이는 삼포의 옛 모습을 지키는 것과 거리가 멀다. ④ 정 씨는 삼포가 변했다는 말을 들으며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다.
- 14 삼포의 변화로 정 씨는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영달과 마찬가지로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이로 볼 때 변화된 삼포의 모습이 떠돌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15 **모범 답안**

인	물	중	심	에	서	객	관	적	대	상	인	기	차	로
서	술	하	는	대	상	이	달	라	지	는	것	을	통	해
여	운	을	형	성	하	고	있	으	며	,	정	씨	와	영
달	의	앞	날	이	순	탄	치	않	을	것	임	을	암	시
하	고	있	다	.										

2회 **중간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본문 160~167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⑥: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주는 것) ⑥: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것)	05 ③	06 ③
07 ②	08 ③	09 검색	10 ②	11 ④	
12 ⑥: 배려, ⑥: 협력	13 ⑤	14 ②	15 ⑤		

- 01 2문단에서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한 긍정적 시선(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과 부정적 시선(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재앙)을 보여 주고 이를 통해 논의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여러 주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대안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인공지능의 개념을 밝히고 있지만 현대적 가치를 제재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반박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⑤ 가설을 제시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 02 신기술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상황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인공지능의 발달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니며, 통념이 지닌 한계점의 인식을 촉구하는 것도 아니다. ③, ④ 인공지능에 대한 회의적, 부정적 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비해 미리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은 맞지만,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신중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03 ㉠은 다양한 기술적·입법적 방법을 통해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과제로, 인간의 도덕적 향상이 목적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를 강력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실제지의 의도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로봇이 스스로 무력화(武力化)할 수 없는 원격 자폭 스위치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다양한 상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이 작동하게 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실인 로봇을 막는 국제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05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은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의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를 찾는 것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며,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라고 했다. ②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라고 했다. ④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이다. 따라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될 수 있다.
- 06 인공지능이 모방하고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특성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기계와 공존·공생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 07 ㉠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를 찾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다. 엔진과 같은 기계 장치를 만드는 기술자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 사고보다는 물리적 원리를 이용하여 기계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 08 이 글에서는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으로 감정과 의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보기>는 로봇 역시 감정과 의지를 지닐 수 있는 존

재로 그리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로봇에 의한 부정적 미래를 가정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인간과 로봇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④ <보기>는 로봇을 감정을 지닐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글보다 로봇의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글에서는 로봇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의지와 감정을 들고 있으며, 생략된 일부분에서는 로봇이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0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와 함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억양, 어조, 강약, 높낮이 등을 일컫는다. 정확한 의사 전달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③ 협상 참여자는 경쟁적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④, ⑤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11 푸른시 관계자는 주거 조건 하락이라는 지역 주민의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화장 시설을 추모 공원 형태로 조성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초록구 대표 측의 편협한 인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고려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 추모 공원 건립 시 환경 오염 문제와 집값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해결책이 없다면 추모 공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② (나): 푸른시에 화장 시설이 하나밖에 없고 현재 시설 규모가 한계 능력을 초과한다며 화장 시설 건립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고, 환경 오염과 집값 하락은 이미 확보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③ (다): 화장 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에 환경 오염이 있으며, 교통 혼잡과 소음 발생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근거를 들어 환경 오염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해결책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⑤ (마): 화장 시설을 추모 공원 형태로 건설하여 문화 시설을 조성한다는 푸른시 관계자의 말에, 장례식장과 봉인당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문화를 즐길 수 있냐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13 우리나라 문화재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관해서는 찬반 양론으로 나누어 토론을 해야 한다. 이는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진행되는 협상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④ 서로의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경우로, 협상을 통해 타협하고 조정하여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14 최종 양보점은 최소 요구 사항으로,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의미한다. 대학 병원 규모의 의료 시설 설립은 초록구 측의 요구 사항이지 최종 양보점이라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초록구 대표는 푸른시의 최소 요구 사항인 화장로 15기 설치를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화장로를 15기 이하로 하여 추모 공원을 건립한다.'는 초록구의 교섭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③ 푸른시는 종합 체육관을 건설해 달라는 초록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종합 체육관 건설은 푸른시의 교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④ 푸른시의 원래 계획은 화장로 20기를 설치해 하루 8회씩 운용하는 것이었으므로, '화장로 20기를 설치해 하루 8회씩 운용한다.'는 푸른시의 목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⑤ 환경 감시 제도 운용에 대해 초록구 대표와 푸른시 관계자가 모두 찬성하고 있으므로, 환경 감시 제도 운용은 초록구와 푸른시 모두의 교섭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15 3~5번 합의안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므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6번 합의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③ <보기>는 초록구 대표와 푸른시 관계자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타협하며 조정한 결과이다. ④ <보기>를 보면 초록구는 화장 시설 유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 01 ② 02 ⑤
- 03 수양 대군이 희유해도 굴하지 않고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키겠다.
- 04 ⑤ 05 ③ 06 ② 07 ④ 08 ③
- 09 ④ 10 ⑤ 11 ④ 12 ④ 13 ⑤
- 14 ② 15 ⑤ 16 ④ 17 ③ 18 ③
- 19 ④ 20 ④
- 21 인간이 가진 고유한 속성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
- 22 ② 23 ⑤ 24 ③
- 25 서로의 입장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

01 (가)는 9행의 '아아', (나)는 종장의 '어즈버'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4음보의 울격을 가지는 것은 (가)가 아닌 (나)와 (다)이다. ③ (다)는 '이 몸'을 통해 화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나)에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나)와 (다)는 '초창-중창-종창'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도 내용상 '기(1~4행)-서(5~8행)-결(9~10행)'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⑤ (가)~(다)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서정 길래로, 이야기 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02 ㉔은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고려 왕조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㉔: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㉕: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것으로,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㉖: '오백 년 도읍지'는 멸망한 고려 왕조를 시간과 장소로 나타난 것으로,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 ㉗: 자연(산천)은 옛날 그대로 변함없이 있지만 고려의 옛 충신들(인걸)은 찾을 수 없는 것에서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04 (나)의 '춘풍(春風) 이불'은 화자가 임이 돌아오는 날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파스한 이불을 의미한다. (나)에서 화자가 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맞지만, 화자는 임을 위해 새롭게 이불을 만들고 있지 않으며 임과의 재회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물가에 가서 해매지만 결국 임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꿈이 들어 꿈에서 임을 만났는데, 그나마 닭소리에 잠이 깨는 바람에 꿈속의 임에게 마음속 생각을 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죽어서 지는 달이 되어서라도 임에게 다가가고 싶어 한다. 이는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에 해당한다. ④ (나)의 화자가 임이 오신 날 밤을 굶이 굶이 떠겠다고 하는 것은,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05 ㉔에는 화자가 한밤중에 독수공방하는 처지가 드러나 있고, ㉕에는 밤(시간)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발상 및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의 '한밤중에 혼자만 있는 쓸쓸한 침실'에 ㉔에 드러난 화자의 처지가 반영되었고, '슬픔을 포개어 쌓았다.'에 ㉕의 발상 및 표현(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이 반영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㉔의 화자의 처지나 ㉕의 발상 및 표현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⑤ '추억의 보따리를 풀어헤쳤다.'에 ㉕의 발상 및 표현이 반영되었지만, ㉔의 화자의 처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06 심청과 심 봉사, 심청과 장 승상 맥 부인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간은 천륜지간(天倫之間)이라 꿈에

미리 보여 주는 바가 있었다.'에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지만, 이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닌 사건에 대한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㉓ 현실과 환상이 교차된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㉔ 대립적인 두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㉕ 묘사보다는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부각되고 있다.

07 심청의 희생은 심청의 내적 갈등, 심청과 심 봉사 간의 갈등, 심청과 장 승상 대 부인과의 갈등과 같은 양상을 불러일으키지만, 심 봉사와 동네 사람들 간의 갈등은 찾을 수 없다.

08 심청은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야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라며 애초에 장 승상 대 부인의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는 소용없는 일임을 밝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네 이 무상한 사람이. 나는 너를 지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않는구나.”라는 장 승상 대 부인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② 장 승상 대 부인은 심청이 벼사람들에게 받은 공양미 삼백 석을 자신이 대신 내어 주겠다고 제안하며 심청의 결정을 만류하고 있다. ④ 심청은 장 승상 대 부인의 말을 수용할 경우 벼사람들 일이 낭패로 돌아갈 것이라며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⑤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 하는 짓”이라는 심청의 말에서 알 수 있다.

09 (가)의 ‘지금 눈 내리고’로 볼 때 화자가 처한 현실이 암울함(일제강점기)을 짐작할 수 있다. (나)의 마지막 행의 ‘밤’ 역시 화자가 처한 암울한 현실을 짐작하게 한다. (다)의 화자는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고 고단하게 살고 있으므로, (가)~(다)의 화자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만 해당한다. ② (가)의 ‘눈’, (다)의 ‘싸락눈’ 등을 통해 (가)와 (다)의 배경이 겨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배경이 겨울인지는 알 수 없다. ③ (가)~(다)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⑤ (다)에만 해당한다. (가)는 민족사에 대한 전망과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동경과 구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10 (다)의 화자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화자는 절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눈 속에서도 정갈하게 서 있는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견뎌 내겠다고 다짐한다. 여기에서 화자가 갈매나무를 떠올린 것은 이 나무가 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속성과 자태를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화자는 자연인 갈매나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방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다.

11 (가)의 화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실과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문제 상황을 회피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㉔이다.

오답 해설 ①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 인내만으로 상황을 이겨 내려 한다는 점에서 (가)의 화자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12 (나)의 주된 표현 방식은 ‘A는 누구의 B입니까.’이다. 여기서 A는 ‘자연 현상’이고, B는 ‘절대자의 자취’이다. 결국 화자는 자연 현상을 통하여 절대자의 모습을 대하는 기쁨을 반복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㉕은 청각적 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㉔의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이 솟은 대밭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서걱이는 대이파리 소리는’ 자연 현상에, ‘누구의 숨결은’ 절대자의 자취에 해당하며,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② 시각적 심상과 촉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13 (다)의 화자는 운명에 대해 인식하며 고난을 참고 이겨 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은인자중(隱忍自重)’은 ‘마음속에 감추어 참고 견디면서 몸가짐을 신중하게 행동함.’이라는 의미로, (다)의 화자의 생각과 그 의미가 통한다.

오답 해설 ① 무실역행(務實力行): 철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실행함. ② 살신성인(殺身成仁):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 ③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④ 유유자적(悠悠自適):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

14 정 씨와 영달, 백화가 폐가에서 잠시 쉬어 갈 때 백화는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며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한다. 즉, 백화는 갈매기집에서의 삶을 회상하며 자신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인물의 행동은 간결한 문체로 드러나지만, 사건 전개에 박진감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③ 배경은 사건을 암시하거나 주제를 드러내지만 미국적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는다. ④ 인물의 외양 묘사는 제시되지 않았다. ⑤ 인물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15 (라)의 ‘차부는 백화가 옥바라지했던 군 죄수들을 보냈던 장소로, 백화가 이별을 경험하는 공간이지만 그로 인한 괴로움에 절망하는 공간은 아니다. 백화는 이 시절을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이라고 회상한다.

오답 해설 ① (가)의 ‘감천’은 세 사람이 목적지(정 씨와 영달 - 삼포 / 백화 - 고향)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타려는 공간이다. ② (가)의 ‘들창 안’은 정찰한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지만, 세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불투명하게 들려 그들과 단절된 공간을 알려 준다. ③ (나)의 ‘폐가에서 백화는 영달을 바라보면서 말을 건네는데, 이는 백화가 영달에 대해 호감을 느낌을 보여 준다. ④ (다)의 ‘갈매기집은 백화가 처음 필러 간 술집으로,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것을 깨달은 공간이다. 하지만 백화는 군 죄수들을 옥바라지했던 그 시절을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이라고 회상한다.

16 소설에서 화자(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목소리라면, 초점 화자는 사건이나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보기>에서는 초점 화자가 인물과 긴밀한 상태에서 그 인물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 부분을 묻고 있는데, ㉔이 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㉑, ㉒, ㉓, ㉕: 인물들의 모습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7 <보기>에서 인간은 대화(의사소통)를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고 했다. (다)~(라)는 백화가 자신의 과거를 영달과 정 씨에게 말하는 부분으로, 이를 통해 백화는 자신만이 알고 있던 ‘감춰진 자아’를 표현하여 ‘공개된 자아’를 확대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백화는 갈매기집에서 지냈던 자신의 ‘감춰진 자아’를 표현함으로써 ‘공개된 자아’를 확대하고 있다. ② 백화는 막연한 두려움에 군 죄수를 무시위한 적이 없다. ④ 백화가 옷 한 벌 못 사 입어도 행복했던 모습은 백화의 ‘감춰진 자아’에 해당한다. ⑤ 여러 고장을 떠올렸던 백화의 모습은 ‘감춰진 자아’에 해당하며, 이를 표현함으로써 ‘공개된 자아’를 확대하고 있다.

18 이 글에서는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을 찾아 인간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는 기계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계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보기>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만의 검색의 뇌 기능을 발달시켜 활용해야 한다.

19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인공지능 로봇과는 다른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공지능을 통제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멀

다.

오답 해설 ①, ② 인공지능 통제에 대한 입법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다. ③, ⑤ 인공지능 통제에 대한 기술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다.

20 ㉠은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주다.’의 의미이므로 ‘나누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다. ㉡: 능력이나 수준 따위가 비교 대상을 훨씬 넘어서다. ㉢: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다. ㉣: 모르는 것을 알아서 드러내다.

22 ㉡는 협상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23 화장 시설 건립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소음 문제에 대해 초록구 대표와 푸른시 관계자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에 합의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초록구 대표의 첫 번째 발언에서 알 수 있다. ② 초록구 대표의 마지막 발언에서 알 수 있다. ③ 푸른시 관계자의 “이번에 건립하는 시설도 정례식장, 화장장, 봉안당을 ~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④ 푸른시 관계자의 “그러면 봉안당과 정례식장을 제외하고 ~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24 푸른시 관계자가 화장 시설을 공원 형태로 조성하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주민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